

배포 일시 2025. 3. 10. (월)

담당자

즉시 보도 가능

임지웅 사무국장 010-7546-8648
진우성 공보국장 010-2017-0584

[기자회견] 내란세력 캠퍼스 난동, 즉각 중단하라!

- 극우유튜버 등 내란세력 캠퍼스 난입·난동 규탄
- 어처구니없는 탄핵 반대 가스라이팅 시도 단념해야
-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내란세력, 동조세력 모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봉건우)가 3월 10일 월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세력 캠퍼스 파괴·내란선동 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을호 국회의원,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동원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 임규이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장, 진우성 전국대학생위원회 공보국장과 성균관대학교 오연지 학생, 중앙대학교 최찬영 학생 등이 참여했다.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은 “탄핵 반대에 청년이 모이고 있다는 근거는 50여 명이 채 안 되는 2030 남성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주범으로 체포됐다는 사실뿐”이라고 밝히며 “근거없는 말로 청년들을 선동해서 퇴로를 만들겠다는 ‘청년팔이’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추악한 준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한 성균관대 재학 중인 오연지 학생은 “최근 극우 파시스트 세력이 캠퍼스를 소음과 폭력의 온상지로 오염시키고 있다”, “저급한 혐오언어를 구사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 파괴를 선동하는 외부 세력의 테러는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전국대학생위원회는 회견문을 통해 “안정권, 배인규 등 내란수괴 윤석열 옹호 극우유튜버들의 난동이 도를 넘었다”며 “헌정질서 파괴를 선동, 캠퍼스 혼란을 부추기는 내란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세력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이나”고 반문하며, “아집과 독선, 반민주와 반법치, 윤석열 1인을 신처럼 떠받드는 독재만이 이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적, 헌정질서 파괴자”라고 규정하며 “국회와 선관위 침탈, 포고령을 통한 국민 ‘처단’ 시도 행위를 옹호할 명분은 단 하나도 없다”고 밝히면서 “이를 옹호하는 모든 행위 및 발언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 파시스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발언한 이동원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어느 역사를 보나, 민주화를 위해서는 희생과 땀이 필요하다”며 “이제 우리 세대가 행동하고 땀 흘려 민주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내란세력의 탄핵 반대 가스라이팅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선동과 내란 동조 모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끝.

붙임. 기자회견문

최근 내란세력이 대학가에 난입, 설렘과 따뜻함이 가득해야 할 캠퍼스를 욕설과 폭력으로 얼룩지게 했습니다.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민주 헌정 질서 수호의 선봉에 섰던 우리 대학생의 캠퍼스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를 선동, 캠퍼스 혼란을 부추기는 내란세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안정권, 배인규 등 내란수괴 윤석열 옹호 극우유튜버들의 난동은 도를 넘었습니다. 고성을 지르며 캠퍼스는 물론, 인근 지역 전반에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한 극우유튜버는 난동을 제지하는 학생 먹살을 잡으며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하려 했습니다.

특히, 안정권과 배인규, 두 극우유튜버의 행패는 눈뜨고 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이화여대 캠퍼스에 난입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지지 집회를 진행 중인 학생들 앞에 드러눕고, 파면 축구 피켓을 뺏었습니다. 한국외대 앞에서는 스피커를 이용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등 비판하기도 유치한 작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차별·무맥락으로 “빨갱이”라고 외치는 행태는 철 지난 색깔론에 의지하려는 것으로 보여 갈잡기까지 합니다.

내란세력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개인이 초헌법적 권한을 휘두르며 국민 “처단” 운운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누구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들에겐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자신들만 옳다는 “아집”과 “독선”, 선거제도와 사법부를 부정·파괴하려는 “반민주”와 “반법치”, 윤석열 1인을 신처럼 떠받드는 “독재”만이 이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극우유튜버를 비롯한 내란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적”, “헌정질서 파괴자”입니다.

모든 문제 원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입니다. 국민도, 야당도, 선관위도 아닙니다. 대학생과 야당 의원 입을 틀어막은 것도, 국민을 무시하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것도, 아집과 독선으로 여당 총선 참패를 초래한 것도 모두 윤석열입니다. 심지어 탄핵심판에 이른 것도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본인 책임입니다.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포고령을 통한 국민 “처단” 시도 행위를 옹호할 명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 옹호하는 모든 행위 및 발언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 파시스트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내란세력에 경고합니다. 내란 선동, 캠퍼스 평화 파괴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미 대학생은 물론, 대다수 국민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행한 헌정파괴 행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즉각 파면과 헌정 수호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탄핵 반대 가스라이팅 시도와 내란 선동, 모두 단념하길 바랍니다.

전국의 청년·대학생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어느 역사를 보나, 민주화를 위해서는 희생과 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민주주의가 당연한 시대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 체제에서 태어난 최초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민주 헌정 질서는 공기와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해서 평소에는 무감각할 수 있지만, 없어선 안 되는 제1의 가치입니다.

그 제1의 가치, 민주 헌정 질서를 일거에 파괴하려는 게 내란수괴 윤석열과 극우유튜버를 비롯한 내란세력입니다.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들을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극우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내란세력이 2030 세대를 탄핵 반대 세력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한 우리 청년·대학생에 대한 우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행동하고 땀 흘려 민주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어처구니없는 탄핵 반대 가스라이팅 시도를 단호히 차단해 주십시오.

내란세력의 반헌법적·파시즘적 행태를 막아주십시오. 내란 진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윤석열 즉각 파면과 내란세력 진압만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내란세력의 탄핵 반대 가스라이팅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내란 선동과 내란 동조,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캠퍼스에서, 광장에서 앞장서겠습니다.

대학생의 일상, 캠퍼스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민주 헌정 질서, 수호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